

서울시의회 “전통시장·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관리해야”

전통시장 일회성·분절적 이벤트 많아 시즌·지역별 특색 반영해 추진해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도 이익 감소 개선방안 중심 성과 분석 필요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7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자료제출 등) 21건을 접수해 49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2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사업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검증된 효과가 없다며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시에 지시했다.

시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 만족도 조사 용역’을 벌였다. 용역 결과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98.8%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고, 상인 인지도는 82.6%로 직전 연

도와 비교해 7.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가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 만족도는 80%로 높았고, 이벤트 재참여 의향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통시장 행사를 일회성 혹은 분절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명절, 김장철처럼 시즌별, 지역별(용문시장 맥주 축제, 석촌시장 야시장, 포방터시장 - 토요일엔 포방터) 특색을 반영한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대비 너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6.8%로 전국 평균

25.7%보다 8.9%포인트 낮았다. 시는 “올 1월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부담 비율을 종전 40%에서 20%로 조정해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독려 공문을 전달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 수도 늘고 있으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악화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대응 부족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 위주에서 개선 방안 중심으로 성과 분석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월릉~대치 10분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2.2km 지하화 사업 하반기 착공 동남~동북권 통행시간 20분 단축 민자사업·재정사업 구간 나눠 건설



사업비가 투입된다. 통행료는 2500원(성수 톨게이트 1600원, 군자 톨게이트 9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 총 12.2km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첫 삽을 뜬다.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10.1km)의 시행자로 선정하고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민간 6378억원, 시비 3496억원을 합쳐 총 9874억원의

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만들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예산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가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성수IT지구 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IT·R&D 산업 대상 감면 혜택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성수IT지구(성수동 성수2가 3동 일대)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정보통신산업)와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됐다.

성수IT지구 내 권장 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용자가 지원된다. /김현정 기자

‘그레이트 한강’ 구체화… 여가공간 마련

서울시가 한강 수변 공간을 휴식·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공간기획과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 용역 사전규

격을 28일 공개하고,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며, 총 7억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본 용역을 통해 시는 한강변의 주요 사업 부지와 한강 전 구간의 여가 기능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청소년·노년층 맞춤형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방문, 비대면 무료 교육

경기도가 청소년 금융기초지식, 노년층 금융사기예방법 등 대상자 맞춤형 금융·신용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합리적 소비, 저축,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예방법 등 교육대상자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용적 맞춤

형 교육과정이다. 금융 전문 강사가 방문 또는 비대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1곳이던 교육기관을 올해 서민금융진흥원까지 2곳으로 확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 대상, ‘꿈이머니’라는 게임을 활용한 금융기초지식·진로탐색 ▲청년 대상,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금융월드를 활용한 경제적 자립지원 ▲노년층 대상, 게임북을 활용

한 금융사기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교육동영상·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형 교구재를 지원해 교육하며, 지역아동센터 대상 용돈기입장 쓰는 법·노년층 대상 증여와 상속제도·디지털 금융교육 등을 진행한다.

교육기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도민의 금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3월 28일(화) 음력: 2월 7일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6, 동두천 1/17, 가평 1/17, 파주 0/16, 서울 4/16, 양평 1/18, 인천 5/13, 수원 5/15, 용인 5/15, 평택 0/17

해돋이: 06:25, 해질: 18:5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백악관 “러 벨라루스로 핵무기 이전 징후 없어”
▲미국 36위 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SV B 인수 임박 /사진 뉴스스

▲日증시, 서방 금융위기 우려 속 반등 마감…닛케이지수 0.33% ↑
▲푸틴 “중국은 군사 동맹 아닌 기술 협력 관계”



▲IAEA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방문길 오른다
▲여성 교육 금지한 탈레반 “여성 교육 재개” 또 주장 /사진 뉴스스